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하는 대학광고

◇대학광고 변천사를 살펴본다<下>

지난 1001호에서는 대학광고 변천사의 1단계와 2단계인 상업광고의 조창기·형식화·통장 그리고 상업광고의 전성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하편에서는 3단계인 상업광고에 대한 대학성과 대학신문의 인식변화와 새로운 이미지광고들의 등장과 4단계인 대학광고 후의 것 만들기 운동과 대학신문의 자체광고 제작 바람에 대해 알아보겠다. <편집자주>

6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학신문의 광고지면에 세력을 확장한 상업광고는 주로 대학생들의 소비성향을 고려한 단거지 효과를 내다본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편, 맥주, 화장품, 상투, 의류 등의 상품들을 부각시켰다. 당시의 상품들은 상품명들의 생명이 지금에 비해 수명이 매우 길었다는 이유로 있었지만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할만한 국내 기업들의 인물이 부족함에도 그 이유가 있었다 하겠다.

그러나 상업광고가 계속되자 학생들의 반응은 상업광고 초기

하는 부분이 생겼다. 다름아닌 '기업의 이미지'라는 그 당시로 쓰는 면 장래의 이미지를 광고로 다루는 것이었다. 물론 기업은 기업 자체의 이미지가 이후 상품에 관한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 또한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를 내포하면서 기업의 이미지광고는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미지광고는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상품명 부각에서 기업이미지 홍보로 방향전환 광고를 지면으로 인식, 자체 기획광고 제작 늘어

인식이 서서히 바뀌어 갔다. 바로 이 부분에서 몇몇 기업들의 생각과 대학생들의 생각이 일치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당시의 기업 이미지광고를 보면 우선, 선전과 포한제일, 산

광고에 등장시켜 기업 이미지를 광고해 나갔다. 또한 대우는 별 다른 광고의 맥을 찾지 못하다가 '대우가 있습니다'라는 광고의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내 광고의 색깔을 찾아 갔다. 현대 역시 미래 지향광고를 계속하면서 좀더 색다른 정보를 제공했다. 바로 월간 문화행사와 대학별 소식을 안 내한 것이다.

또 대학생의 남남과 청춘에 초점을 맞춘 광고로 기업의 이미지와는 별도로 발바리도 유명한 강철수와의 상화에 민선준의 사투를 인용한 광고도 제작되었고 대학의 씨름을 순례하면서 만든 광

시 상업광고의 한 부류였으며 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학신문은 자기 나름대로의 광고제작과 광고의 지면화 다시말해 광고 역시 지면이라는 광고 '우리것 만들기 운동'을 벌여 나갔다.

이 운동은 광고를 '자본주의의 꽃'으로 보고 광고는 그 생산성, 선진적이고 지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그 패색이 심해지자기에 직접 광고를 제작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나갔다.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 바로 전대기원의 기획광고들과 각 신문사에서 제작하는 기획광고들이

다. 전대기원에서는 88년 '대학신문'을 창간하면서 '대학신문'의 '대학'이라는 광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 시기별로 계속하여 광고를 제작해 왔으며 현재도 대학신문의 대학신문에서 제작하고 있다.

각 신문사를 역시 단거리로 수습기조로써서 총학생회장에게 관한 것, 신입생을 위한 광고, 졸업식등 거의 모든 문제들에서 기획광고를 제작하였다.

특히, 올해 한양대와 세종대는 수습기조로써서 총학생회장에게 관한 것, 신입생을 위한 광고, 졸업식등 거의 모든 문제들에서 기획광고를 제작하였다.

대학신문의 광고에 관한 인식은 그 맥을 상업성의 배제와 광고를 지면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광고수익에 의해 신문물을 제작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것이 이전까지 신문과 광고의 지면이 분리된 현상을 극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지환 기자)

문화단신

'경희극회' 정기공연 산입대 시청각실에서

수원캠퍼스 연극동아리 '경희극회'는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산입대 시청각실에서 제26회 정기공연 '그림자 싸움'을 상연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겪는 자기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갈등하는, 비틀어진 애정관의 소유자인 회사원 진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 연극은 내면의 이중성과 기존의 잘못된 자아를 그림자라는 소재를 통해서 표현하였다.

'문학' 문학의 밤 개최 정화진씨 강연회도

서울캠퍼스 중앙문화 동아리 문학은 "그대 유행하였다

하는가'라는 타이틀로 오는 28일 오후6시 강간교실에서 92'문학의 밤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작가들의 시를 추려하여 극시를 제작, 선보이며 '문학의 창' 채문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정화진씨의 강연회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손으로 만드는 환경 한마당' 개최

유엔 환경개발회의의 한국위원회 주최로 '우리손으로 만드는 환경한마당'이 오는 30일부터 양일간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농산물 및 자원재활용품들의 전시마당과 무궁해비무탄들이들의 생활한마당, 동물공원과 마당극이 펼쳐지는 문화마당이 열릴 예정이다.

신간안내

'위기의 중국 어디로' 한반도 통일 청경 모색

양평출세의 사회과학저서 '위기의 중국 어디로'가 한나라에서 발간되었다. 과거로부터 우리나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중국이 현재 위기를 맞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하는지 사회적 시각에서 조망하여 소련연방 해체이후 사회주의 국가로서 길어가는 하는 방향과 실리의 바탕이교를 통한 한반도 통일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하여, 최근 급변하고 있는 경제상황과 사회주의권 몰락의 미묘한 실상을 겪고 있는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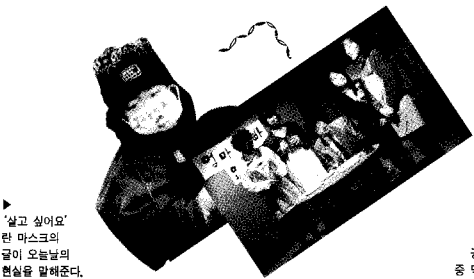
'농민전쟁 연구2' 역사 비평사 발간

한국 역사연구회의 농민전쟁 서적 '1894년 농민전쟁 연구 2'가 역사비평사에서 발간되었다.

이 책은 1894년 농민전쟁 10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하고 있는 57년 연중사업중 1월 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이어서는 두번째 논문집으로 18, 1947년의 농민전쟁 편이다.

시대별로 농민전쟁의 추이와 양상 및 반봉건 전쟁의 성격과 유형을 서술하여 한눈에 알아 보기 쉬운 서적이다.

문화탐방 극단 '현장'을 찾아서



▶'살고 싶어요'란 마스크의 팔이 오늘날의 현실을 말해준다.

공해공화국 중 익거리마당

성균관대 유림회관 건너편에 자리잡은 10여평 남짓의 극단 '현장' 사무실 겸 연습실에는 월 1만 원의 월세만 지불하고 있다.

광복 구석의 심리대와 그 옆의 컴퓨터, 책장에 꽂힌 문헌, 있는 연극자료들과 장구, 북 등의 사물이 그 좁은 공간에서 20여명의 단원과 함께 살고 있다는 어느 단원의 말에서 어느 연극단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엿볼 수 있었다.

극단 '현장'은 일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본 건강한 문화에 대중화 시키기 위해 지난 88년 1월이 창단되어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밝히는 작품을 창작, 공연하는 공연예술자들과 공연을 통해 얻

어진 노동자 문제의 정황을 보급하는 대중문예사업이다. 극단의 활동은 정리, 조직하는 기획조정단을 두고 있다.

거기에 맞춰 '현장'은 각자 사

업장과 대학에서 순회공연을 갖는 한편 노동자문화와 지도사업인 발동, 풍물놀이, 연극지도 등을 통하여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화를 개발, 창작, 조직하는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대문을 창작하는데 있어 주로 공동창작을 하기 때문에 준비과정의 더 길어 진다는 단점들은 전문창작가를 두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장'은 또한 지금까지 공연한 작품들과 제1,2회 민족극 한 마당에 출품되었던 모든 작품을 영상화하여 공연자료화 원제를 실시, 각 노동조합과 학교 등의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학부>

본보는 지령 1000호 발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극단 '현장'이 시월초 예술극장한 마당에서 공연한 바있는 '공해 공화국'을 오는 28일 2시 서울 노원극장에서, 27일 2시 수원 외대앞 광장에서 2차례 공연한다.

캠퍼스 문화인

함께하는 생활공동체 미술패 — '생물공' 회장 김수진양을 만나

회원들과 작업 도중에 여남이 없는 '생물공' 미술공동체 (이하 생물공) 회장 김수진 (국문·91)양을 만나 보았다.

고교 시절 전교조 가입 미술교사의 활동을 접하고 평소 관심이 있었던 미술에 대한 애정이 굳어져 지금의 '생물공'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그녀는 현재 15명의 회원들과 함께 관화, 실크스프린, 절개그림 등을 제작하고 있다.

"다른 동아리와는 달리 생활적인 측면에서 작업을 통해 속도를 많이 많이 해서 선우패들 사이가 화합이 있고 부끄러움 같은 것 없다"는 그녀는 처음 좋은 것이 있다는 마음으로, 편하고 재미있는 것만들기를 했던 주패들이 작업을 통해 화합이 일하는 보람을 알게 되었다고 요즘 신입생들의 생활을 다져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잘못을 바로

기술적 부분의 전문성 축적이 조화를 이룬 '생물공'을 만들었다며 포부를 다지기도 했다.

일주일에 한번 사회과학 세미나를, 한달에 한번 미학이론을 수강 모임시간에 공부한다는 그녀는 희망 중심의 상업적 유행 구조를 가진 생활에서 미술이라는 것이 꼭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아는 그릇된 인식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점아주는 한 방법이라고 근래에 관화의 한 종류로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심세하게 표현되는 실크스프린에 매력을 느껴 많은 포스터들을 실크스프린으로 제작한다는 그녀는 자신들의 작품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의식속에서 자신들의 활동이 자리잡아 가는 것이라며 벽에 붙은 포스터 한 장에도 관심을

내용성과 전문성 축적의 조화 이뤄야 '특별한 재능'이란 인식 극복이 과제

여하도록 하는 기초는 '지식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리라, 공작업이 그러한 잘못을 바로

가져 달면서 학생들에게 주요한 정치 사안에 대한 포스터를 보고 깊은 통찰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주길 바란다.

'생물공'은 농활을 통해 순창

한편 '생물공'은 미교과 동아

리 '축발' 과도 작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동작업을 하는 등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있고, 이번 대동계 기간에는 본교 등본 이수명열사에 대한 화우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일부터 이틀간 미술을 주제로 한 작품들 노선극장 주변에 전시할 계획이며 미술을 사랑하고, 그림이나 관화를 그리고 싶어 하는 모든 학생들을 환영한다고 한다.

(김일형 기자)

5. 29~5. 31, 한양대학교

그 무한한 감동을 느끼십시오

장대같은 비가 내리는 부산대학교 운동장 너머, 5만여명의 학생과 시민이 제5기 전대협을 출범식을 치르기 위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이미 빗물로 흥건한 것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줄줄도 내리고 비가 오는 탓에 한기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들 1회용 가스라이터를 꺼내 불꽃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던 그곳은 이내 별이 가득한 은하수처럼 반짝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의 가슴속에 반짝거리던 그 불빛을 보고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백만학도의 가슴마다 빛나는 조국의 발빛거예요"

승리의 노래소리가 하늘을 덮고 백만학도의 굳건한 주먹이 어둠을 가늘게 내밀고 대한 신념과 그 무한한 감동을 느껴봅니다. 드디어 불패의 신화, 구국의 강철대오 제5기 전대협이 출범하였던 것입니다.

5월28일 제6기 전대협이 출범합니다. 전대협의 여섯번째 출범, 그 무한한 감동을 느끼십시오.

여섯번째, 불패의 신화가 시작됩니다

6 전대협 전대기원

구국의 강철대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 언론의 선포



백만학도 여러분들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출범식에 초대합니다. 백만의 전대협에 대한 사랑을 모아 스스로 주인공 참여로, 민주정부 수립의 당찬 의지로 달려 오십시오 구국의 강철대오 백만의 이름입니다. 백만의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자리, 투쟁의 신화를 창조하며, 승리를 확신하며 민주정부 수립으로 나아가는 자리, 전후반 전설의 주춧돌을 쌓는 자리 전대협 출범식 이미 백만을 위한 무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백만의 청춘들이 그 빈자리를 사랑 투쟁 열광의 자리로 만들어 봅시다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제6기 의장 태 재준

조국은 싸우고 있다.

